# 농어촌공사, 무안군 농업인대회서 '정책알림서비스' 적극 홍보

- 목포무안신안지사, 농정 정보 알림 통해 농업인 소통 확대 시도 맞춤형 정책정보·홍보 콘텐츠 제공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 강화 SNS 채널 통한 정보 확산도…전업농·청년농 대상 서비스 확대

2025.11.27 16:19 입력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 신사옥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을 위한 정책정보 알림 서비스를 앞세워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섰다. 농정 이해도를 높이고 농지지원제도 홍보를 병행하면서 실질적 농업지원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목포무안신안지사(지사장 범필재)는 11월 27일 무안군 무안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32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와 '제21회 한국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 현장에서 '농어촌드림 정책알림서비스'를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공사 직원들은 한농연·한여농 회원과 관계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리플릿을 배포하고, 농지지원제도 관련 설명도 함께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정책 정보의 실질적 활용도와 접근성에 대한 농업인들의 반응도 확인했다.

공사에서 운영 중인 '정책알림서비스'는 주요 농정 정책과 공사 사업, 홍보 콘텐츠 등을 문자, 이메일, SNS 등을 통해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농업인들이 주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특히 전업농과 청년농 등 정책 수요자가 높은 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SNS 채널을 통한 서비스 확산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긍정적 여론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범필재 지사장은 "정책알림서비스는 농업인의 경영 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시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정책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박진성기자 s9611006@hanmail.net

인쇄하기 창닫기